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총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교회 갱신과 성장에 기여한 목회자 세미나 제6학기 내일 개강

한국교회성장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 제6학기 내일(9월 10일) 낮 12시에 개강함으로써 2년간의 한 과정이 끝나게 된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은 지난 89년, 한국 교회의 영적 갱신과 성장을 위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실시하기로 하고 2월 13일에 그 시작을 위한 제1학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그 이후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은 교회의 영적 갱신과 성장에 필요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제2학기부터는 “예배와 설교”, “신학과 교육”, “선교와 사회 봉사”, “목회자와 성경 연구” 등 당면한 문제들을 국내 유수의 신학자, 목회자를 초빙하여 다루며, 그 마지막 학기에 이르렀다.

지난 5학기 동안의 등록 현황을 보면, 총 등록자 6,025명 가운데 목사가 72.7%, 강도사가 3.7%, 남전도사가 11.9%, 여전도사가 5.8%를 차지했다. 또 교과별로는 장로교가 66.9%로 제일 많고, 감리교 7.6%, 침례교 5.1%, 순복음교 4.0%, 성결교 3.8%, 구세군 0.7%, 기

타 13.1%로 나타나 이 세미나가 교과를 초월하여 많은 목회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일부터 개강하여 “목회 행정과 심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제6학기에도 전국에서 수 많은 목회자들이 등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1 교 시		제 2 교 시	
	14 : 00 ~ 15 : 30		15 : 50 ~ 17 : 20	
9 월 10일	과목 :	바람직한 제직 선정과 관리	김동익 목사	
17일		목회 행정과 조직 관리	조동진 목사	
24일		2000년대의 목회자의 자기 관리	박종렬 목사	
10월 15일		목회 행정과 교회 성장	이성희 목사	
22일	강사 :	새벽 기도와 교회 성장	나결일 목사	
29일		전통 도덕과 기독교 윤리	맹용길 교수	
11월 5 일		심방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장자락 목사	
12일		심방의 유형과 메시지	정필도 목사	
19일	이 종 윤 목사	산업화 현상과 목회	한명수 목사	
26일		교회 내의 갈등과 치유	오성훈 교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성경연구원 제2학기 접수중

성경연구원이 지난 8월 개강하여 저녁 7시에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개강한 성경연구원 제2학기에 보다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여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경연구원의 첫 수업일은 교사양성부가 9일, 주간성경공부반은 11일, 아담반은 14일이다.

특히 새벽 6시부터 50분간 진행되는 아담반은 이번 학기부터는 여자 성도들의 청강도 가능해졌으며, 남전도회 협의회에서 준비하는 아침식사도 제공된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4일 창신교회에서 열렸던 서울 세계 선교대회에서 '90아시아선교대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주제 강연을 했다.

또 6일 오전 9시에는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던 통합측 여전도회 총연합회의 기도회에서 “세계를 향한 선교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선교 의식을 고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장통합측 세계선교대회 주제 강연 예장통합측 여전도회 총연에서 강의 기독교 방송과 대담

아울러 이목사는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초대되어, 공산권 성경보내기 운동 공동의장으로써 전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대담을 하였다. 이 대담 내용은 지난 7일 낮 1시와 저녁 9시에 각각 방송되었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4일 창신교회에서 열렸던 서울 세계 선교대회에서 '90아시아선교대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주제 강연을 했다.

또 6일 오전 9시에는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던 통합측 여전도회 총연합회의 기도회에서 “세계를 향한 선교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선교 의식을 고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설립 제37주년 감사예배·축하음악예배 드려

1953년 9월 6일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설립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어왔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주일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처음 18명의 성도가 씨앗이 되어 나무가 자라 가지가 처지고 열매를 맺어 아시아와 세계로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교회는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온 백성의 위로가 되고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설립을 감사하는 축하음악 예배로 온 성도의 뜨거운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최시원 감독의 지휘하에 멘델스존 작곡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 김신영 선생의 오르간 반주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순서를 가짐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멘델스존 작곡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 김신영 선생의 오르간 반주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순서를 가짐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멘델스존 작곡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 김신영 선생의 오르간 반주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순서를 가짐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91년도 서리집사 420명 추가

91년도 서리집사로 새로 임명될 성도들은 모두 420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역자회의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면담을 거쳐 지난 주간

에 두 차례의 특별 훈련을 마쳤다. 앞으로 90년도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금년말에 서리집사로 임명될 것이다.

중등부 음악회 개최기로

중등부는 오는 9월 15일(토) 저녁 7시에 나사렛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허락하신 음악적 달란트를 발굴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관심을 갖고, 이 음악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사·인쇄에는 청원서 첨부해야

교회는 앞으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발행하는 복사물 기타 인쇄물을 사무국의 인쇄실에서 총괄하여 취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 하는 부서나 기관은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결재를 필한 소정의 ‘문서발행청원서’를 원고와 함께 인쇄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복사비와 인쇄비는 4분기로 나누어 인쇄실에서 청구한다.

21세기를 향한 속사도행전운동



이 중 윤 목사

다섯째날

전도자의 모델

(행16:35~17:9)

빌립보 지방에 이른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점장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바울은 역전승을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점장을 낮게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던 바울이 석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재판절차도 없이 자기와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을 사과하라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승리를 거둡니다.

역전승을 거두는 사람은 의와 사랑과 영적인 힘으로써 불의와 미움과 세상의 힘을 이기게 됩니다.

둘째,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빌립보에서 암비올리는 52킬로미터이고, 거기서 아볼로니아까지는 50킬로미터이고, 거기서 데살로니

가까지는 58킬로미터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 길을 걸어나가면서 진리를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던 전도자로서, 무사안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지혜로운 전도자였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안식일, 구약 성경을 잘 활용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나 비둘기같이 순진한 마음뿐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엡 5:15).

넷째, 바울은 목적이 분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전도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바울은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 말씀·기도·사랑·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행 17:4).

여섯째날

바울의 전도 열매

(행17:10~21)

본문을 보면, 바울은 또한 베뢰아와 아덴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으나, 아덴 사람들은 들쭉발, 길가발, 가시발 같은 마음을 가져서, 복음을 배격하였습니다.

첫째,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

습니다(행 17:11).

말씀에 흥미를 가져야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한 후에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

니다.

바울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덴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비쳐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복음의 차원에서 관찰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덴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분을 토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선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의분만 토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교와 연결시켰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그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는 데 가장 좋은 비결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곱째날

이제는 회개하라

(행17:22~34)

본문은 특히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근거로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행 17:30) 이 말씀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악을 없는 것으로 하고 구원을 주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사람들보다 신들을 만나기

가 더 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우상 숭배가 번창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에는 에비구레오(에피큐리안)와 스토이코(스토익 학파)가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한낱 말장이로밖에 비치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

이지 않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말을 더 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종교성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잘못된 아덴 사람들의 신관을 고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는 이처럼 다른 종교에 대하여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진리라는 것을 지적해주어야 합니다.

즉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지식의 교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아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관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알리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를 재촉하지 않는 것은 멸망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놓다"라는 의미의 회개란 우상 숭배에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요일 1:15).

여덟째날

고린도의 밤

(행18:1~11)

우리들은 일생을 살아갈 때에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에 다다랐을 때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에서 2장 3절에서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두려움과 염려는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그가 아덴에서 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서의 전도의 전망도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자 디모테가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난

후이어서 그의 곤고함은 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은 민족이었고, 신앙의 동지였으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용기를 준 동역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거둔 첫번째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고린도의 밤은 깊은 밤으로만 끝나지 않고 동녘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다고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캄캄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행 18:9,10).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움과 곤고함에 빠졌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나아가 입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환상은 공포와 좌절, 불안의 밤이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 새로운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 성도는 살롬경로대학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스도인의 노인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살롬경로대학이 지난 9월 6일에 개강하였다.

경로대학의 개강예배는 오전 11시에 갈릴리홀에서 송기홍 장로의 사회, 박관영 장로의 기도, 김학진 목사의 설교로 드려졌다.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김학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학생들은

인생 말년에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하였다.

경로대학은 이런 교육적 프로그램 외에도, 하두숙 집사를 상담원으로 세워 건강 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학기는 이미 시작하였으나, 보다 많은 노인들의 참여를 위하여 계속 등록을 받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1교시(예배) 11:00~11:50	2교시(특강) 13:00~14:20	3교시(특별)
9. 6	개강예배	반편성 학생회	
9. 13	김광석 목사	노인 건강 관리 (조인순 권사)	
9. 20	김학진 목사	치과 질환	
9. 27	야외학습 이세열 목사		
10. 11	정기봉 목사	노인 정책 (장남구형 가정복지과장 안복희)	각 부 별
10. 18	송태근 목사	신앙 간증 (연예인교회 하정일 집사)	
10. 25	야외학습 김성운 목사		
11. 8	최인근 목사	내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 (윤용규 목사)	
11. 15	김창수 목사	현대를 사는 노인 에티켓 (정소영 박사)	
11. 22	졸업식 이종윤 학장		

핸드벨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핸드벨 콰이어가 가을을 맞이하여 함께 봉사할 단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름답게 성전을 울려 퍼지는 종소리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핸드벨 콰이어 단원 모집에 많은 응모 있기를 바란다.

오디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일 시 : 9월 23일 오후 2시

●장 소 : 본당 3층 제3다락방(핸드벨 콰이어실)

●대 상 : 피아노 체르니 30번 이상을 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

●시험내용 :

1. 찬송가 9장, 주기도문송가 창
2. 다른 찬송가 초견 읽기
3. 중치는 자세

■ 지원교회 탐방

금매교회를 다녀와서

요한전도회 제11지회



요한전도회 제11지회 임원들은 8월 15일 새벽 4시 30분에 밝은 표정으로 중부고속도로 입구에서 모였다. 참석하지 못한 봉사부장 박정만 집사님의 봉고차 지원으로 우리는 한 지붕 안에서 교제하고 찬송하며 오늘 승리를 다짐하였다.

전날 비가 몹시 온 탓에 길은 몹시 미끄럽고 간간히 내리는 소낙비에 깜짝 놀랄 만한 교통사고들을 많이 목격하였지만, 교구부장 이인범 집사님의 노련한 운전으로 우리들은 그저 건강과 믿음을 주시어 젊은 때에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대전을 지나 구미에서 약 1시간 가량 가니 띄엄띄엄 동네가 보이고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보였다. 금매교회에 시무하시는 이재식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도착예배를 드렸다.

이재식 전도사님은 이곳에 오신 지 7년이 된다. 전도사님은 원래 충현교회에서 청년부, 유년부 교사로 봉사를 하셨다. 그러다가 71년도에 논산에 있는 비인교회로 농어촌전도를 가서 목회자 없이 교인만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산촌에 있는 교회를 택하여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교인은 20명으로 그 중 남집사가 1명, 여집사가 2명, 중고등부 학생이 3명이다.

동네 가구수는 120가구로, 유교와 불교를 믿는 가정이 99%이고 나머지가 기독교를 믿고 있어 전도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30여 년이 되었어도 전도사님들이 짧게는 7일, 길게는 3~4개월씩 잠깐 다녀가는 바람에 동네에서 전도사에 대한 인심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7년 전, 이재식 전도사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동네 학생들이 축구공으로 교회 유리창을 전부 깨고 자녀들은 밖에 나가지만 하면 동네 아이들이 집단 구타를 하고 전도사님이 동네에 다니며 인사를 드리면 고개를 돌려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했다. 처음 이곳에 적응하기까지 어려웠던 실정을 들으며, 우리가 매월 보내드린 지원금이 정성없이 보내지는 않았었는지 반성하며, 부족한 우리들이었기에 가슴이 매어지는 것 같았다. 준비한 학용품등과 교회 건축현금을 전도사님께 전달하고, 4개팀으로 나뉘어 주민 전도를 나갔다. 1개팀은 교회 부근, 3개팀은 양쪽 동네로 나누어졌다. 다행히 비가 와서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집안에 많이 모여 있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냉랭하게 외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미안함과 전도사님의 열심으로 정성껏 대접하는 시골에서 느끼는 훈

훈함도 맛보았다.

열심으로 정성껏 대접하는 시골에서 느끼는 훈훈함도 맛보았다.

전도사님과 금매교회 교인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중고 봉고차 한 대를 주십사 하며 기도하고 계신단다.

그 마을은 동네 주민들의 대부분이 정씨인 씨족사회이다. 그래서 종교도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진다. 열심히 전도하여 작년에 학생이 8명이었는데, 대도시 대교로 진학을 위해 떠나는 바람에 이제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 정말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외로 환자들이 많은 것을 알았다. 전도사님도 의료 전도대가 내려와 진료와 전도가 병행된다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장담하신다. 씨족사회라 똘이 예수 믿으면 그 똘에는 자연히 믿게 될 것이니 말이다.

전 회원이 교회로 다시 내려와 문 앞 부서진 벽돌더미와 앞뜰의 평탄작업을 도와 드렸다.

교회에서 준비하신 산나물이 풍성한 식사대접에 체면도 없이 밥과 반찬 모두를 비우며 맛있게 먹었다. 출발예배를 드리고 아쉬움 속에서 재회를 약속하며 봉고차에 몸을 실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인근 목사

사태는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살기가 도는 분위기 같기도 한 이상아릇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교원자들에 모여 예수를 잡아죽일 방책을 간구하느라고 지혜를 짜내고 있었다. 그들은 개회를 엿보며 살기등등한 꽃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갑자기 한 여인이 뛰어 들어와 향유가 든 항

아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향유를 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털로 닦아내었다. 이상하다. 저 여인이 왜 저럴까? 정신이상자일까? 여인에게 더러는 악의에 찬 눈총을 보내기도 했다. 이상한 행동에 어리둥절하고 있기도 했다. 또는 못마땅해서 한마디 내뱉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이 옥합은 매우 값진 것이다. 많은 돈을 주고서만이 살 수 있는 순전한 것이다. 매우 귀중한 향유임에 틀림없다. 이 향유를 발에 쏟아 붓는 행동이 낭비요 쓸데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소설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기에 낭비가 아니다. 낭비라고 말한다면 거룩한 낭비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여인의 믿음임에 틀림없다.

무더운 여름이 슬슬 꼬리를 감추고 맑고 높은 하늘의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풍성한 계절이 되었으리라. 오곡이 무르익을 뿐 아니라 나무마다 주렁주렁 과일도 열릴 것이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 성 싶다. 주기 위함이다. 인간

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 일년 내내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나무는 주기 위해 추운 겨울도, 무더운 여름도 견디며 자기가 낼 수 있는 최상품을 내어 인간에게 공급한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문득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말씀이 생각이 났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나무처럼 나의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충현교회가 설립 37주년을 맞이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주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제 충현교회는 한국의 교회 아니, 아시아의 교회, 세계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만이 이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자에게 주기 위함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리라.

다음호 세기동은 김창수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 '90아시아선교대회 서울 선언문

세계 선교 : 우리의 응답

우리 50여 개국으로부터 온 1,302명의 참석자들과 참관자들은 1990년 8월 서울에서 모여 아시아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이 대회가 역사적인 대회이며 아시아에서 개최된 첫 선교대회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 대회를 주최한 아시아 복음주의 협의회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대회를 주관한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와 총현교회의 환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우리 땅에 복음의 씨앗을 충실히 심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설립되게 한 서구 선교사들의 희생적이고 수고로운 사역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땅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문화적 무감각에 대해서 실망했었지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도 우리의 선교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문화적 지배를 감행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아시아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 감사를 올린다. 그 증거로 아시아 선교 운동이 급속히 성장하고 발전한 데 대해서 기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선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우리 대륙의 각 지역과 그리고 그 넘어 복음화되지 않은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사용하시리라고 믿는 바이다. 우리는 혼돈과 변화무쌍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임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번 대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아시아

교회의 긴급하고 완전한 시급성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다음 내용을 확신한다.

1. 우리의 삶 속에 정확 무오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그 성경 속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시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드러나 있음을 믿는다.
2. 인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며,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함을 믿는다.
3.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세계 도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야 한다.
4. 세계 복음화의 중심적인 도구는 지역 교회이며, 선교 사역에 교회의 전 기관과 선교기관, 협의회 등이 같은 목적으로 연합하여 일해야 한다.
5.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복음은 전 인류의 모든 필요들—영적, 문화적, 경제적 혹은 사상적 여건에 상관 없이—을 채워줄 수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위해 헌신을 한다.

1. 우리들의 개인 사역과 우리들이 속한 교회나 기관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둔다.
2. 우리들이 속한 각 지역 교회 및 협의회, 교단의 주요한 활동으로서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한다.
3. 우리들이 속한 나라들의 복음화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 (1) 각국에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며 개발시킬 것이다. (2) 교회 성장의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3) 부족이나 도시, 또는 지역별로 복음화된 지역을 찾아낼 것이다. (4) 위의 연구 결과들을 각 교회와 기관들에게 나누어주어 선교를 위한 기도와 전략을 세우도록 격려할 것이다.

4. 우리는 지역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상관없이 기도와 헌금과 모든 선교 헌신에 동참하게 한다.
5. 우리는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 몇몇의 분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협력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 교회와 선교회, (2) 국내와 해외의 지체들, (3) 사역 현지에서의 각 국 선교사들
6. 우리 각 지역 교회와 협의회 내에서 선교가 기독교 교육의 적 영역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노력한다.
7. 선교사 후보들에 대한 적절한 하고도 효과적인 훈련을 가 능한 한 각 국내에서 제공한다.
8.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해 우리들의 전 사역을 활용한다.
9. '90아시아선교대회에서 행한 우리의 헌신의 실행을 위해 하나의 지속적인 기구나 조직을 설립한다.
10. 교회의 부흥과 효과적인 영적 전투 및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개인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성령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결어
'90아시아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주셨다. 세계 선교의 도전 앞에서 우리 아시아 교회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합

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앞으로 10년간 영적 대 수확을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라는 성경적인 꿈이 실현될 것을 바라본다.

■ 초등부 글짓기대회 우수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지 미 경 (3부)

나는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이 제일 바쁘면서도 기다려지는 날이다. 어머니께서는 토요일은 예비일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목욕도 깨끗이 하고, 교회 숙제와 만나도 충실히 하며, 주일에 부를 찬송도 열심히 연습을 한다. 주일날 아침 8시가 되면 집을 나선다. 성가 연습을 위하여 8시 20분까지는 교회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이다. 9시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장로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

배를 드려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장난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떠돌고 장난하는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곤 한다.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을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다.

충현유아원 원아 모집

대 상 : 만 2세~만 5세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우유병을 뗐어야 하며, 대·소변을 가려야 함
교육시간 : 오전 7시~오후 6시 30분(월요일~토요일)
식 사 : 아침식사, 점심식사, 간식 2번
개 원 : 9월 17일(월)

충현유치원 운전기사 모집

자 격 : 대형 면허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의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성도
제출서류 : 이력서, 당회장 추천서, 건강진단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제출기한 : 9월 21일(금)
제 출 처 : 충현유치원 사무실 (소석관 2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7 과 기 도

성경 : 마 6 : 5~18

요절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 : 7)

찬송 : 482, 487

제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설 명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

시며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히 10 : 19, 20).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받는 우리는 자신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질 문

1.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마 6 : 6)?
2.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요 14 : 13, 14.; 요 16 : 26)?
3.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롬 8 : 26, 27)?
4. 이사야 59장 1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고 자신의 기도를 반성해봅시다.
5.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을 서로 나누어봅시다.